

케빈 E. 프레드릭 박사, 발도파, 강의 5, 카타리파의 이단에 대한

언급 © 2024 Kevin Frederick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발도파의 역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케빈 프레데릭 박사입니다.
이것은 5번째 세션, 카타리즘의 이단에 대한 대처입니다.

이번 설교는 카타리즘의 이단에 대한 대처입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되새기고 싶습니다. 서기 1세기 중반에 고린도 교회에 설교하면서 바울은 교만한 논리로 믿음을 혼동하여 분열된 회중에게 설교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일부 초기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지혜가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바울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간의 지혜를 얻는 것이 개인적 구원을 가져올 것이라는 관념을 거부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러한 관점과 대조적으로 바울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서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죽음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도록 격려합니다. 한편으로, 인간의 지혜는 인간에게 현명한 선택이자 개인적 구원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반면, 신성한 지혜, 즉 십자가와 고난의 지혜는 인간의 눈에 어리석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바로 그 수단으로 약함과 취약성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 인간의 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신성한 지혜에 대한 지적 통달을 통해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반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가 하나님에 대해 계시한 은혜에 대한 신뢰가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독교의 첫 세대인 바울 시대에 일부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향한 수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개인적으로

얻는 것을 강조하여 초기 교회의 이단인 영지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신앙 체계의 구조 자체는 이원론이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즉, 구약의 하나님은 타락하고 심하게 결함이 있는 세상의 하나님이었으며 세상과 그 주민들에 대한 분노와 정죄로 가득 차 있었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신성한 의와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원론은 모든 불완전함을 지닌 물리적 세계는 죄스럽고, 정죄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반면, 물리적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영적 세계는 신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얻음으로써 영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지주의 신자들은 모든 물리적 세계를 거부했지만, 영적 영역에 대한 지식에 집중한 삶은 진정한 구원의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영역은 죄스럽고 영적 영역만이 구원의 수단이라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러한 신념 체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이라는 정통 교리에 양립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원론적 신앙의 틀을 뒷받침하기 위해 영지주의는 예수가 단지 인간으로 보였을 뿐이며 실제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안에서 신이 그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 인류에게 지혜라는 신성한 선물을 전달한다고 믿습니다. 영지주의 신앙에 따르면 신은 전능하기 때문에 신은 고통을 겪고 죽으면서도 여전히 신일 수 없습니다.

예수의 고난에 대한 이러한 거부는 인간과 창조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만들어냈고, 창조와 인간 모두 거부되고 초월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구원은 영적 지식의 획득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은 영지주의의 신성한 지식을 배우지 못한 모든 인류를 정죄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영지주의에서 천국으로 가는 문은 매우 좁았고 신자의 정신과 지식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고 인간에게 무상으로 주어진 신의 은혜에 기초한 신앙은 영지주의 신앙 체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초기 중세

시대에 비잔틴 제국의 동유럽 지역에서 보고 밀주의 라고 불리는 운동으로 영지주의 신앙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 초기 보고밀주의자들은 영지주의에 오랜 뿌리를 둔 온건한 이원론자였으며, 따라서 그들의 신앙 중 많은 부분이 로마와 동방 정교회와 상치되었습니다.

그들은 미사 전례와 성찬례 성사, 구약성경을 성경으로 사용하는 것, 예수의 기적에 대한 믿음, 세례 성사, 가톨릭 교회의 사제직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영역에 속하는 모든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혼도 거부했습니다. 카타르 지도자들은 독신이었고 고기, 유제품, 계란을 포함하여 동물의 번식과 관련된 모든 음식을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영지주의가 재등장한 것을 살펴보기 전에 역사적 맥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확립해야 합니다. 1054년 서방의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의 동방 정교회 사이에 일어난 대격변과 그 후 로마 가톨릭 교회 내에서 그레고리오 개혁이 확립되면서 11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교회와 사회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황 그레고리는 교회 내 임원 임명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확립하고, 성직 매매 관행을 부인하고, 교회의 성직자를 판매하는 관행을 부인하고, 모든 성직 교회 지도자에게 독신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개혁을 통해 로마 교회를 정화하려고 했습니다 .

교황 그레고리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교회 관리들에게 술에 취해 음탕한 행동을 하는 성직자 지도자를 비판하도록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에게 사제와 주교를 책임지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레고리는 가톨릭 평신도들에게 결혼한 사제나 성직매매를 하는 사제가 집전하는 성례전에서 벗어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레고리는 이를 반항적인 성직자들에게 개혁을 강요하기 위한 무기로 의도했지만, 사용하기에는 위험한 무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사제를 완전히 없애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후대의 교황과 파리의 교회법 전문가들이 깨달았습니다.

1100년경에는 사회,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 내에서 상당한 변화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12세기는 평신도들이 종교적 삶의 대대적인 쇄신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고 애쓰던 종교적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지도부는 가톨릭 평신도들이 의미를 찾는 데 있어 진심 어린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고, 성직된 의무의 일부로 평신도를 교육할 필요성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교회와 종교 지식인들이 신성한 진리의 보호자이자 수호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믿었는데, 그들은 그 진리가 평신도의 손에 맡기기에는 너무 신성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서 적절하게 교육받고 성직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경을 포함한 교회의 모든 종교적 텍스트가 라틴어로 쓰여졌다는 사실은 인구의 2% 미만이 기능적으로 문해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도원, 수녀원 또는 대학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인은 이단 교리와 정통 신앙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교회가 경전과 교회 지식을 얻은 사람을 확고히 통제하고 종교적 비밀로 신앙을 감추려는 정책의 결과로 12세기 상반기에는 수천 명의 일반인에게 다가가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개종시킬 수 있는 이단의 떠돌이 설교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사회 내에서 재산과 부의 경제 시스템인 봉건제는 소수의 가신 계층에 의해 통제되었고, 재산 소유자를 부양하는 훨씬 더 많은 농민 계층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적 구조는 서유럽 전역에서 더욱 고도로 조직화되었습니다. 군사화된 도시 국가가 성장하면서 기사라고 알려진 새로운 직업적 민병대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유럽 전역에 성과 요새화된 마을과 도시의 광범위한 개발을 건설하고 무장하도록 고용되고 훈련되었습니다. 안전한 도시의 부상은 또한 장인과 소규모 사업주로 구성된 중산층의 성장을 목격했습니다.

부유한 토지 소유자는 종종 왕자라는 칭호를 받았고 이러한 지역 사회에서 지배 계층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러한 왕자는 프랑스 국왕에 대한 정치적 충성심을 발전시켰고 국왕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켜 충성심을 뒷받침했습니다. 1114년까지 서양에서는 이단적 이원론에 대한 보고가 없었습니다.

11세기 내내 보고밀파는 비잔틴 제국 전역에서 동쪽으로 더 퍼져 나갔습니다. 12세기 초에 보고밀파는 서유럽에 선교사를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12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퍼펙티라고 알려진 프랑스의 카타르 사제들은 모두 불가리아와 콘스탄티노플에서 발견된 보고밀파 예배 매뉴얼과 동일한 예배 책을 공유했습니다.

1143년 쾰른에서 가톨릭 주교와 그의 동료가 재판을 받았을 때 카타리파가 서유럽에 확고히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카타리파는 1145년 초 툴루즈를 중심으로 한 남부 프랑스 랑그독 지역에 존재했습니다. 1160년대까지 카타리파는 북부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부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2세기 카타리파의 표준 예배 언어는 라틴어였는데, 이는 그들의 주요 청중이 교회와 사회의 교육받은 엘리트였음을 의미합니다. 비잔틴 제국의 카타리파 선교사들은 카타리파 의식의 라틴어 번역본을 가져왔을 것이고, 이를 통해 서유럽에서 카타리파가 빠르게 퍼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매뉴얼은 카타리파로 개종한 프랑스 사제와 수도사들이 복사했습니다.

각 공동체의 교육받은 카타르 평신도들은 가족과 구성원들에게 카타르주의의 기본 개념을 공유하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카타르주의는 기독교에서 신앙으로 등장했지만, 신의 이원론적 본질에 대한 강조와 예수의 인간성에 대한 부정으로 인해 카타르주의는 정교회 신앙에서 인식하는 신학적 이단이 되었습니다. 발도파와 가톨릭 교회의 관계와 달리, 카타르주의는 가톨릭 신앙과 별도로 자체적인 서면 자료와 공식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카타르파와 발도파 사이의 갈등을 이해하게 됩니다. 1184년 이전에 발데스 문제는 목회적 문제였으며, 선교적 빈곤에 대한 매우 강력한 상호 부름 과 제도적 성직자의 의례적 법적 권리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발데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사도적 빈곤에 대한 열렬한 열망이나 새롭게 태어난 사명감을 공유하지 않는 위계의 관할권에 열의를 복종해야 했습니다.

발데스는 교황에 의해 분열주의자로 낙인찍혔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 파문당했으며, 곧 리옹의 지역 주교에 의해 추방당했습니다. 이 추방의 결과로, 발데스의 추종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해 짝을 지어 파견되는 복음 모토를 채택했습니다. 발데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로마 모교회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고 카타리파의 이단을 스스로 인정하기 위해 프랑스 랑그독 지방에 선교사 짝을 보내 카타리파에 반대하는 설교를 하고 대중에게 정교회 가톨릭과 카타리파의 이단적 가르침 사이의 신앙 차이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랑그독이라는 용어는 문자 그대로 사람들의 언어를 의미하며, 프랑스의 이 지역에서 사용되는 공통 언어는 프로방스어였으며, 이는 리옹에서 사용되는 지역 언어와 동일했습니다. 12세기 후반,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로 알려진 왈도의 추종자들은 주로 성경과 모국어로 기독교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이 지역의 중산층과 농민 계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또한 겸손과 온유의 정신을 구현하여 예수의 가르침과 생활 방식을 통합했습니다.

발도파는 이 방법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랑그독 전역의 평신도에게 카타르파의 이단의 본질을 지적했고 카타르파의 영향력 확산을 늦추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발도파가 일반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효과적이었던 결과, 카타르파는 13세기 초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데 점점 더 의존했습니다.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한 이 초기 수십 년 동안 라틴어 사용에 정통한 또 다른

프랑스 가톨릭 학자가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에 합류하여 운동에 필요한 지적 성실성과 깊은 신학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Antiheresis 라는 문서로 , 이단적인 카타르파와 그들의 신앙을 다루는 데 기여했습니다. 듀랑은 카타르파의 잘못된 신앙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대중을 모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 매우 발전된 신학적 개요와 일련의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Liber Antehiresis는 발도파 운동에 대한 듀랑의 가장 큰 공헌으로, 로마 가톨릭 주교들조차도 카타리파 이단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인정했습니다. 발도파가 카타리파 이단을 다루는 데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주교들은 발도파의 추종자들을 비난하는 데 느렸고, 교황청이 이단을 비난하는 브랜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교들은 눈을 감았고, 지역 주민들이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효과적이었던 반카타리파 설교에 만족했습니다. 발도와 그의 친구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었고 지역 가톨릭 위계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들과의 유일한 갈등은 발도파의 설교 관행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거의 전적으로 로마 가톨릭이었던 지역에서 카타리파의 영향력이 빠르게 커지면서 교황은 이단에 대한 분노로 카타리파 운동에 대한 십자군을 선포했습니다. 십자군은 이교도의 공격으로부터 기독교 세계를 방어하기 위해 교황이 소집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십자군은 또한 이교도가 빼앗은 땅과 재산을 되찾기 위해 소집될 수 있으며, 십자군이라고 불리는 가톨릭 신자들이 충성을 맹세합니다. 거룩한 십자군은 교황이 지정한 적에 맞서 무기를 든 군인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면에서 용병과 징집된 군인과 구별되었습니다. 십자군의 동기는 돈이나 재산으로 지불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 오히려 그는 지금까지 지은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는 면죄부를 받았고, 십자군에서 군인으로서 한 행동은 그의 고행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군은 신에게 서약을 하고, 군인을 양심에 공개적으로 묶고, 양심에 따라 서약을 이행합니다. 카타르파에 대한 십자군은 가톨릭 기독교에서 이탈한 서유럽인에 대한 교회의 첫 번째 호소였습니다. 1205년, 랑그독의 베지 에 공동체에서 카타르파에 대한 첫 번째 주요 파괴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억제할 수 없는 열정과 분노로 십자군은 베지 에의 전체 공동체를 점령했습니다. 도시는 공격자들에게 빠르게 함락되었고, 시민들은 보호를 위해 가톨릭 성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교회와 마을은 모두 약탈당했고, 전체 주민은 학살당했으며, 성직자, 여성, 어린이는 교회 안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군대의 지도자들이 캠프 추종자들로부터 전리품을 압수했을 때, 그 마을은 불타고 불타버렸고, 원정이 시작될 때, 십자군 군사령관인 아놀드 아말릭은 공격자들이 이단자와 가톨릭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모두 죽여라, 신께서 자기 백성을 아실 것이라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학살 당시 베지 에에는 약 10,000명이 살았고, 살아남기 위해 탈출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는 도시 전체에 대해 이처럼 무차별적인 파괴가 자행되지는 않겠지만, 카타르 공동체는 다른 많은 마을과 도시에서 억압을 받았고, 1229년까지 카타르파에 대한 십자군은 점차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르파 이단이 확고히 억제되자, 교황청의 분노는 1230년대 초에 발도파에 대한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1250년까지 교황청은 모든 심문관이 신성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이단자를 재판하고 유죄 판결을 내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널리 배포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카타르파와 나중에 발도파는 중산층이 신과 인간 사이의 영적 관계에 대한 의미와 이해를 찾는 것을 다루어 알려진 공백을 메우려 했습니다. 두 운동 모두 청빈 서약을 채택하고 모국어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르파의 신념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념과

상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언어로 신의 말씀을 설교하는 발도파의 관행은 교회에 너무 큰 위협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카타르파는 이원론적 사고방식 때문에 비교적 쉽게 무시하고 이단으로 낙인찍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기 교회의 마니교 처럼 구약의 신은 신약의 신이 아니며, 신이 고통을 겪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주류 기독교인에게는 그런 사고방식이 이단으로 무시하기 쉽지만,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가려져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쳐지지 않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매우 통제된 이해에 대한 유혹적인 대안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카타르 운동에 위협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카타르 운동이 세기를 누렸기 때문이지만, 가톨릭 교회에 대한 더 큰 위협은 주로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가난한 선교사들을 둘씩 보내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무리에 의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발도파의 역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케빈 프레데릭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5, 카타리즘의 이단에 대한 대처입니다.